두바이

8월 수출현안 모니터링(정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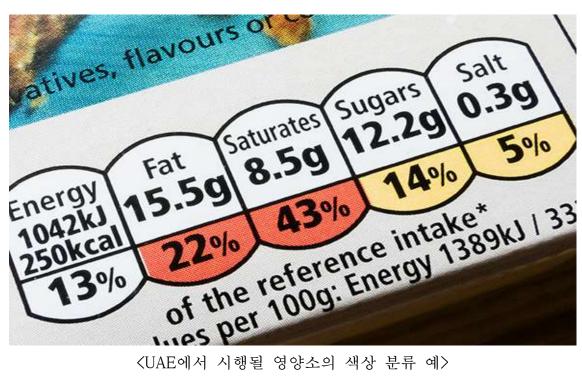
수입제도 변경사항 및 수출현안

1. UAE, 사전 포장 식품에 색상별 영양 라벨 표기 의무화

- UAE 복지정책과(National Program for Happiness & Wellbeing)는 모든 사전 포장 된 식품에 대해 색상 코드로 분류된 영양 표기를 의무화한다고 밝힘
- 식품의 영양 함량을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빨강, 노랑, 녹색의 세 가지 색상 중 하 나로 각 영양소를 나타내도록 함
-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서, 소비자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 식품의 영양 상태를 더욱 직관적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
- 각 색상 코드별 표시는 다음과 같음

- 녹색 코드 : 저위험, 소비 권장

- 노랑 코드 : 중위험, 일반적인 소비 권장 - 빨강 코드 : 고위험, 간헐적인 소비 권장



〈UAE에서 시행될 영양소의 색상 분류 예〉

*출처: What's On Dubai

- 이번 조치는 일반적인 사전 포장 식품에만 적용되며, 과일, 야채, 고기 및 생산과 같은 신선 농산물과 탄산 및 에너지 음료는 제외
- UAE 내각은 이번 새로운 정책이 공중 보건을 장려하고 사람들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 하도록 장려할 것으로 기대



〈UAE 복지부의 영양 라벨 정책 관련 안내문〉

*출처 : UAE 복지정책과 홈페이지

* 출처: 2019. 9. 12. What's On Dubai https://whatson.ae/dubai/2019/09/color-coded-nutrition-labels-to-be-mandatory-on-food-by-2022/

2. UAE 보건부, 설탕 섭취 자제 캠페인 진행

- UAE 보건부는 국민건강진흥 캠페인인 [Ma'Kom]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설탕의 과소 비로 인한 위험을 경고하는 "Beat the Habit, Fight Extra Sugar(습관을 바꾸고, 설탕을 줄이자)"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힘
- 이 캠페인은 9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계속되며, 보건부의 모든 Ma'Kom 미디어 채널 및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UAE 국민들에게 전파 될 예정 임
- UAE는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해 설탕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며, 지난 달에는 2020년 1월부터 설탕과 첨가제가 함유된 음료에 대해 50~100%의 추가 세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바 있음
-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해서는 2017년부터 죄악세(Sin Tax) 명목으로 특별 소비세가 부과 된 적이 있었으며, 이번에는 그에 더해 최대 100%의 추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 자들의 설탕 함유 음료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고자 함
- 앞으로는 음료 뿐만 아니라 사탕, 쿠키, 케이크, 빵류, 통조림, 아이스크림, 요구르트 등으로 세금 부과 대상이 확대 될 것으로 전망 됨
- UAE 보건부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들이 가당 음료의 과소비를 억제하고 건강한 삶과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자 한다고 밝힘



〈UAE 보건부의 "Beat the habit, Fight extra sugar"캠페인 포스터〉

*출처 : Emirates News Agency

* 출처 : 2019. 9. 4. Emirates247

https://www.emirates247.com/lifestyle/health/ministry-of-health-launches-awareness-campaign-beat-the-habit-fight-extra-sugar-2019-09-04-1.689269